



행복한 에너지기술!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사람, 환경, 기술 그리고 사람 **Engineering for Human**  **한국전력기술**



Family

201807



www.kepcO-enc.com

2018년 7월호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엄호섭, 진태은, 변화운 상임이사 취임 외

08 **청백리** | 캠프 현장부 상임감사 초청 특강 개최 외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4 **우체통** | 다시 만난 KEPCO E&C! 외

16 **일하며 즐기며** | 녹음 속에서 만나는 휴식처, 대구앞산공원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4 **新성장지도** | 백두대간의 자연생태와 만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30 **Storytelling** | 동해안 뱃놀이를 즐기다

32 **기자칼럼** | 트럼프가 김정은 보다 더 위험하다?

34 **건강 100세** | 위장병 예방을 위한 식사습관

36 **생활과 과학** | 거미줄을 인공적으로 생산 가능할까

38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40 **한기氏の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2 **Inside Outside** | 동호회 동정 외

44 **인포메이션** |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46 **Poem** | 빗방울

47 **에코포토** | 참 좋겠다

통권 438호 · 발행인 이배수
발행일 2018년 7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화성에스지아이(054-773-7050)

상임이사 이·취임식

KEPCO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엄호섭, 진태은, 변화운 상임이사 취임

신임 엄호섭, 진태은, 변화운 상임이사의 취임식이 지난 6월 28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아울러 신임 상임이사들은 경영관리본부장, 원자력본부장, 에너지신사업본부장에 보임되었다. 엄호섭 상임이사는 취임사에서 ◇윤리경영 활동 강화 ◇노사관계 안정화 ◇기업문화 개선 ◇지속적 혁신 추진 ◇내실경영 강화 및 성과창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수입원 확보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태은 상임이사는 “원자력뿐 아니라 원자력에 바탕을 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다각도의 사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화운 상임이사는 “발전소 성능개선, 환경개선 사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개발과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신재생사업(풍력, 태양광, 바이오발전 등) 추진”, “신재생과 IT의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확대, 분산형 전원의 다양한 모델 개발을 통하여 발전산업 Industry 4.0 구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8년도 상반기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회사는 지난 5월 31일 이동근 상임감과 감사자문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상반기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감사업무 역량 제고와 청렴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2017년에 도입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법률자문기능 보강을 위해 신규 자문위원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를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신임 신봉기 자문위원은 경북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법학연구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 자문위원과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자문위원단은 신임 신봉기 교수, 이시백 전(前)감사원 서기관, 박종훈 변호사, 정성훈 동남회계법인 이사,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반부패·청렴 업무계획 보고와 감사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한전기술이 공공기관으로서 청렴한국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감사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감사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다양하고 객관적인 외부시각을 반영해 자체 감사의 전문성,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천혁신도시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연석회의 개최

경북 김천혁신도시 4개 공공기관(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연석회의'가 6월 14일 우리 회사에서 개최되었다.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제도는 회사 내부의 부패근절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는 각 기관 개별회의와 공동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공동회의에서는 반부패경영시스템 'ISO 37001' 제도의 이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시책 우수사례 발표와 청렴시민감사관의 강평이 있었다.

4개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과 상호교류를 통해 청렴윤리감사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협력에 관한 협약 체결

- 사용후핵연료 핵심기술 확보로
국민안전 확보 및 효율적 사업 추진

회사는 지난 5월 31일 부산 BEXCO에서 원전사후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 협력에 관한 협약'을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회사 조직래 전(前)원자력본부장,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송기찬 소장이 각사를 대표하여 참석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후핵연료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용후핵연료 분야에서 △운반, 저장, 처분 기술과 사업에 대한 협력 △인력 및 정보 교류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산업체와 연구기관 간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의 자체 개발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창락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축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사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국내기관 주도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협력결과를 도출하여 사용후핵연료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고 말했다. 조직래 전(前)원자력본부장은 "우리 회사가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을 본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국민의 안전 보장 및 연관 산업발전에 기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앞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분야의 운반, 저장, 처분 등의 독자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국내 적용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힘을 방침이다.





캠코 현창부 상임감사 초청 특강 개최



회사는 지난 5월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현창부 상임감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1월 한전기술-캠코 청렴·감사업무 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우리 회사의 자체 감사기구 및 감사활동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강에는 이동근 상임감사를 비롯해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캠코 현창부 상임감사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 특강에서 그 동안의 감사성과 분석 및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적용하여 반부패 청렴

감사업무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실무를 바탕으로 한 우수사례와 성과분석 기법에 대한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이었다"며, "반부패 청렴감사 업무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기 간 : 2018년 5월 1일 ~ 7월 31일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1.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2.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3.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4.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5.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 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부패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기 간 : 2018. 5. 1. ~ 7. 31.

신고방법 :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모바일 앱

상담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스승의 날이 되면 담임 선생님의 책상에는
 늘 선물들로 가득했다. 나로 마찬가지로 아침에 선생님이 오시기 전
 책상에 스승의 날 선물들 가져다 놓았었다.

어머니께서는 늘 스승의 날이 되면 선물을 사오셨고, 내가 쓴 편지를 포장지 사이로 집어넣어 선생
 님께 드리라고 하셨다. 나는 선물이 너무 크고 부끄럽다고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백화점 포장
 지로 쌓인 선물을 스승의 날이 되면 언제나 등교 길에 쥐어 주셨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회비로 교수님께 큰 꽃바구니와 상
 품권을 사서 선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의 학교 행사가 되어 버렸다. 나는 정작 스승의 날 교수님 얼굴
 도 뵈지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지 못하였지만 과대표가 선물한 꽃바구니와 상품권이 감사의
 표시를 대신할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어머니가 손에 쥐어줘 선생님께 드린 선물들, 과대표가 대표로 교수님께 전달한 선물들
 과연 이것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시한 것인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
 종의 스승의 날 행사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스승의 날 아이들을 통해서 선생님께 선물
 을 보내던 부모님 세대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의 이 아이들이 커서도 똑같이
 교수님, 직장 상사, 거래처 등에 선물을 보내고 받는 것을 관행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고, 나는 2017년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2017년 5월 15일, 오랜만
 에 나는 학생의 신분으로 스승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학원생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기에 청탁금
 지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다들 모를 리가 없었다. 대학교 다닐 때처럼 교수님께 꽃바구니와 상품
 권 등의 선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도 스승의 날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움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께 선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교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생 대표들이 교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교수님도 흔쾌
 히 시간을 내어 주셨다. 사실 두 달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우
 리는 저녁에 교내 카페에서 교수님을 만났다. 그동안 교수님과 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
 운 시간을 보냈고, 교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직접 교수님께 수업을 잘 듣고 있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
 기 전 대학생 때 경험했던 스승의 날보다 훨씬 의미 있는 스승의 날이었다.

이제는 초등학교들도 청탁금지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선생님께 선물들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대신 아이들은 진심을 담은 편지와 감사하다는 말을 선생님께 전한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예쁜 편지지를 고르는 데도 제약이 되는 점은 아쉬움이 많이 따른다. 그
 아이들이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래도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하였다. 아이들
 은 더 이상 부모님이 사주시는 선물로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감사하고 사
 랑하는 사람에 대한 인사를 선물이 아닌 마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진작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스승
 의 날 행사들을 변화 시켰어야 했다. 그랬다면 그 아이들이 커서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어 주지 않았을까?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때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
 아가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나 또한 청렴한 회사, 깨끗한 사
 회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E&C](#)

& And

경상북도 예천에는
언(言) 총(塚)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통 말 무덤이라고 하면
말(馬)의 무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말(言)의 무덤입니다.
이 마을은 집성촌이 아닌
각성바지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써
조그만 일에도 이러쿵저러쿵 서로 헐뜯는
말들로 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곳을 지나가던 과객이
이 마을 지형이 짙어대는 개의 형상이라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처방인 즉,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내뱉었던 나쁜 말들을
각자의 사발에 담아와서 땅속에 묻고
무덤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말(言)의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 무덤을 만든 후로
마을이 평온해졌다는 전설입니다.

언어의 질과 총량에 대한
상징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에 대한 남들의
좋고 나쁜 평가에 출렁거리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다면
지금의 내 혀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극은 거의가 혀끝에서 시작되므로.

다시 만난 KEPCO E&C!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확률론적안전성 평가 학문 이외에 원자로이론 및 원자로발전 소 계통과 같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학부 과정의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되새기며 더욱 전문적인 직무지식을 함양 해야겠다고 느꼈다. 전출력 Level 1/2 PSA, 정지저출력 Level1/2 PSA, 외 부사건 PSA학습을 통해서 그룹의 다양한 업무와 연계된 직무교육을 익힐 수 있었다. 특히, 어느 한 분야도 빠짐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피드백이 최고의 안전성평가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2 Power Engineering School(제3기)

원자력공학을 이수하면서 학부 2학년 과정 중에 참가하게 되었다. 원자력공학에 흥미가 생기던 시기에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 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교육과정이기때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공학도들이 모여 발전소 설계에 관한 교육과 현장견학을 체험하였다.

Power Engineering School 교육 수료 후에, 교육과정을 주변 학우들에게 추천하였고, 실제로 참가한 학우들도 있었다. 교육 기간 동안 받은 우리 회사의 느낌은 9박 10일의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입사를 향한 마음가짐으로 굳혀졌다.

2017 신입(인턴)사원 직장입문교육

입사에 대한 마음을 굳히며 학부 과정을 졸업하고,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기나긴 전형 끝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41명 의 동기를 만났다. 우리 모두가 어색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더한층 돈독해진 정으로 3주간의 직장입문교육 을 이수하였다.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과정들 중에서 특히, 그림으로 배우는 우리 회사 비전 및 핵심가치 워크숍에서 조각난 8개 의 그림이 합쳐져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동기들간의 화합은 물론,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팀워크 문화 활동을 통해 모두 같이 노래를 완곡하면서 팀워크의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었다. 직장입문교육을 통해서 우리 회사 5대 핵심가치인 도전, 소통, 신뢰, 안전, 전문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새롭게 도전하는 과 제는 동기들간 서로에 대한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

3주간의 짧고 굵었던 교육을 수료하는 동안 동기들과 많이 정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41명의 동기들 은 서로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각자의 부서로 배치되었다.

2017 신입(인턴)사원 직무실습교육

4년제 학부 과정 중, 처음 접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를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성을 평가하는 안전성평가연구기술그룹으로 배치되어 직무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한 학부과정 지식에 실무 지식이 더해지고,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면서 안전성평가연구기술그룹의 직무를 익힐 수 있었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 학문 이외에 원자로이론 및 원자로발전소 계통과 같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학부 과 정의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배웠던 지식들을 다시 되새기며 더욱 전문적인 직무지식을 함양 해야겠다고 느꼈다. 전출력 Level 1/2 PSA, 정지저출력 Level1/2 PSA, 외부사건 PSA학습을 통해서 그룹의 다양한 업무와 연계된 직무교육을 익힐 수 있 었다. 특히, 어느 한 분야도 빠짐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피드백이 최고의 안전성평가를 이끌어 낸

다는 것을 깨달았다. 설계된 발전소 도면을 보면서, 이론으로 배웠던 원자력발전소의 계 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발전소 전체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발전소 계통 전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계통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학 부 과정에서 짧게 접해본 SAREX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무실습교 육 기간 동안 고장수목 및 사건수목을 만들어 보고 경량화 해 보면 서, PSA 수행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전력기술 임용

인턴근무를 무사히 마치고 정규직으로 임용이 되었다. 짧게 느껴졌 던 2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 활기 넘치는 41명의 동기가 생겼 고,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부서가 생겼으며, 협동심과 책임감 등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겼다. 동 기들간에는 끈끈한 동기애와 애사심으로 서로의 임용을 축하해 주었다. 인턴 근무를 수료하면서 보다 자신감이 생겼고, 잘 하 고 싶은 열정이 생겼다. 입사 결과를 기다리던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우리 회사의 사훈처럼 “열심 히 공부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신입사원”이 될 것이다.

2011년 원자력공학과에 입학하고 며칠이 지난 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전력기술에 입사하는 해에도 원자력발 전은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기술력으로 자립해 온 원자력발전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한 다. 한국전력기술의 일원으로서, 원자력공학 전공자로서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자력을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해 본다. **E&C**





눈속에서 만나는 휴식처, 대구앞산공원

에너지신사업본부 토목건축기술그룹 건축팀은 2018년도 컬처데이(Culture Day) 행사를 지난 4월 4일 실시하였다. 향기로운 꽃 내음이 물씬 풍기는 계절에 시행되는 만큼 기존의 실내에서 하던 컬처데이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야외활동 위주로 하자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김천에서 시간상으로 그리 멀지 않은 주왕산(주산지), 우포늪, 전주한옥마을, 공산성(공주) 등등. 요란한(?) 토론 끝에 우리 팀은 대구의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구앞산공원으로 결정하였다.

대구앞산공원

대구시 남구에는 해발 660m의 앞산이 솟아 있다. 앞산은 좌우로 산성산(653m), 대덕산(546m)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 세 산 줄기의 북쪽 계곡에 조성된 공원이 앞산공원이다.

대구시에서 가장 큰 도시자연공원으로 508만 평에 이른다. 정상 부근까지 총연장 790m의 케이블카가 운행되며, 산기슭에는 궁도장, 승마장, 수영장이 있고, 시조작가 이호우 시비와 1979년에 지어진 낙동강 승전기념관도 있다. 큰골 대덕동산은 조경시설이 훌륭하여 가족 단위 나들이 및 청춘 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대구앞산공원에는 대구 시민들의 여가공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산책로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구앞산공원을 시작으로 앞산과 연계된 산책로와 대구앞산공원에서 산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 그리고 대덕산과 연계된 산책로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산책로는 각각 2km에서 4km에 이르기 때문에 취향과 체력에 따라 산책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앞산전망대에 올라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대구 경치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못 보았다.



뜻밖의 행운? 불행?

뜻하지 아니한 일을 때마침 공교롭게 만나거나, 뜻 밖에 일이 잘 들어맞을 때 쓰는 말이 '가는 날이 장날' 이다. 하루라는 시간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과중한 업무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던 부서원들에게 컬처데이는 설렘을 넘어 가벼운 흥분까지 느끼게 함이 틀림 없었다. 하지만... 웬걸, 우리 팀의 컬처데이는 항상 비와 함께하는 듯했다. 작년, 재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대구앞산공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비가와도 대구앞산 케이블카는 정상 운행을 하고 식당도 이미 예약을 해 놓은 상황이었어서 우리는 예정대로 강행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연일 미세먼지 어플리케이션에 '외출금지'라며 방독면을 쓴 울고 있는 해골이 등장했지만 반가운(?) 비 덕분에 미세먼지 지수는 '야외활동 하기에 좋아요'로 바뀌어 있었다. 비가 와도 어플이 웃고 있으니 기분은 좋았다.

앞산케이블카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 고민도 했었지만 1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대구앞산공원에서 숲 냄새, 흙 냄새도 맡으니 역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벚꽃이 만개하기도 전에 봄비에 벚꽃이





흘날려서 앞산입구는 하얀 벚꽃 잎으로 덮여 있었다. 앞산이 대구의 벚꽃명소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벚꽃 터널이면 숨겨진 벚꽃 명소로 급부상해도 될 듯하다. 앞산공원은 대구 도심에서 가깝고 주변에 카페 거리, 맛집 등이 있어 대구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시자연공원이다. 도심을 바라보고 있는 앞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산림이 울창하며, 심신수련과 체력단련이 용이하다고 한다.

‘앞산’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대구의 앞쪽에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불리던 것이 고유명사로 굳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앞산은 다른 산들과 같이 10여개의 등산코스과 6여개의 자락 길이 있다. 우리는 대구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앞산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누구나 편히 갈 수 있었다. 주차장에서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 길은 걸어서 약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앞산전망대

케이블카 매표소에는 10시 30분쯤 도착했다. 비 오는 평일이라 당연히 우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홍콩에서 단체로 온 손님들 덕에 우리는 30분 정도 기다려야 케이블카를 탈 수 있었다. 앞산케이블카의 건물은 깔끔하게 단정한 모습이었다. 기다리는 시간도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 운행시간도 짧아 기다리기에 지루하지는 않았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갈수록 시야는 좁아졌다. 마치 알프스 등반열차를 타고 구름을 지나 정상에 오르듯... 케이블카에서 누군가가 “마치 중국 장가계 갔을 때 케이블카를 타면 이렇게 앞이 안보이던데...”라며 분위기를 띄운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비 오는 날씨에 스스로를 위안 받고 싶었는가 보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전망대로 가는길 또한 참으로 이국적이었다.

“안개낀 산자락, 구름속 케이블카, 구름위 전망대 가는 길이 푸르고 울창하여 이국적인 느낌을 준다”며 곳곳에서 탄성이 터졌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대구시내

전망대까지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계단을 지나고, 바위틈도 지나고 숲길을 걷다 보면 전망대에 도착한다. 자욱한 구름 위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듯 비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맑은 시가지를 조망할 수는 없었지만 비구름에 잠긴 대구시내의 모습도 나름 센치멘털한 매력과 감동이 있었다. 케이블카 탑승 시 인원파악 실수로 낙오가 되어 뒤늦게 올라온 신 고재문 처장님은 대구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앞산전망대는 처음이라고 한다. 늦게 올라온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마치 산악 마라토너가 된 듯 정상까지 열심히 뛰어 갔다 오시면서 “오랜만에 비를 맞으니 기분 상쾌하다”며 앞산전망대에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뒤풀이

하산 후 우리는 대구에 한번도 안가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40년 전통의 대구앞산 맛집 대덕식당에서 파전에 막걸리로 추운 몸을 녹였다. 대구에는 봄에는 진달래 영산홍이 피고 여름에는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흐르고 가을은 아름다운 단풍거리가 순환도로를 따라 전개되어 진풍경을 연출하며 겨울에는 설경과 설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팔공산과 비슬산, 달성공원, 서문시장, 수성못 등 인기 관광 명소가 많아 욕심을 내어 일정을 소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짧은 대구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점심식사 후 다음을 기약하며 김천으로 돌아와 각자 보고 싶은 영화를 관람하면서 컬처데이 행사를 마무리 했다. **ES&C**



C ommunication

등산길에서 뱀을 만났다.
놀라 달아나는데 뒤따르던 일행이
뱀이 아니라 뱀이 벗어 놓은 허물이라고 했다.
뱀은 무섭다. 징그럽다. 무조건 싫다.
예전 우리 동네 웅이 엄마는
밭일 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
싫건 좋건 부정할 수 없는 뱀의 존재.

우리는 평생을 어둡고 습한 곳을
온몸으로 문지르며 생을 이끌어야 하는
뱀의 숙명을 천형(天刑)에 비유하기도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뱀은 사악함,
유혹이나 배신 등의 부정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혜의 상징이나 수호신 같은 긍정적인 대접도 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뱀을 십이지,
열 두 동물 속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뱀의 허물벗기는 죄에 대한
벌(罰)과 탈(脫), 도약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비록 미물일지라도
그들로부터 생존의 지혜를 배우라는,

선과 악의 행동,
욕망과 자성(自省)의 공존,
성취와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다.
마치 뱀이 협소한 틈새를 통과하며
묵은 허물을 벗겨 내듯이 낡고 편협한
생각을 떨쳐내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한다.

백두대간의 자연생태와 만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다. 대간에서 하나의 정간과 열세개의 정맥이 뻗어 내려 국토의 큰 줄기를 이루고, 줄기의 골마다 물이 흘러 강을 이룬다. 산은 물을 가르고, 물은 땅을 넓혀 사람살이의 터전을 만든다. 그렇다고 대간이 사람만의 터전은 아니다. 백두대간에는 121종 4,499개체의 동물과 72종 6,615개체의 식물군이 분포하여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33%에 해당하는 수치다. 근래의 기후변화와 외래종의 유입으로 인해 점점 위태로워지는 대간의 토종식생들에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개관은 더없이 유익하고 뜻깊은 일임이 분명하다.



01

시드볼트(Seed Vault), 미래의 씨앗을 품다

백두대간이 지나는 옥돌봉에서 구룡산 구간 남쪽자락,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지난 5월 2일 개관했다.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리, 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착공하여 2015년 준공 되었으며,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9년 만에 정식 개관을 하게 된 것이다. 식생의 성장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십여 년은 더 지나야 울창한 수목원의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우선 규모면에서 아시아 최고를 지향한다. 백두대간수목원의 전체 면적은 5,179ha로 1,500만 평이 넘는 규모다. 넓이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2030년까지 아시아 최고의 수목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목표다. 백두대간수목원에는 특별한 시설이 있다. 세계 최초의 지하터널형 산림종자 영구보존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다. 시드볼트는 세계 각국의 종자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조성된 지하 40m 터널형 구조로 영하 20도, 상대습도 40%를 유지하며, 200만점의 종자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부터 멸종위기의 산림생물들의 영구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한국판 노아의 방주라 불릴 만하다. 재미있는 것은 수목원이 자리한 봉화의 역사적 입지조건이다.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 의하면 이곳은 십승지 중 한 곳이다. 십승지는 전쟁이나 질병, 흉년 등의 삼재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인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태백산 사고가 이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02



03



04



꽃과 숲이 가득한 27곳의 주제전시원

백두대간수목원의 또 하나의 가치는 숲과 사람이 만나는 생태기반의 관광인프라 기능이다. 이곳에는 모두 2002종 385만 본의 식물이 심어져 있다. 일반수목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희귀식물들도 관람할 수 있는데, 특히 다양한 고산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다. 고산식물은 키가 연속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수목한계선 이상의 높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인 알파인하우스는 고산식물의 생육환경을 고려한 유리냉실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고산식물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암석원은 고산건조지역 바위틈에서 자라는 약 800여종의 식물을 만날 수 있으며 16,424㎡의 공간 역시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한다. 고산습원은 자연습지의 지형을 이용하여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수집 전시하는 공간이고, 자생식물원은 백두대간에 자라는 우리 식물을 다양한 환경에 맞춰 전시하는 주제원이다. 빙하기 때, 북쪽에서 내려와 기후가 따뜻해지자 더위를 피해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라는 만병초 역시 흔히 볼 수 없는 고산식물 중 하나인데, 별도로 마련된 만병초원은 세계 각국 200여 품종의 만병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밖에 백두대간 야생초화원, 약용식물원, 식물의 진화과정과 계통을 분류해 놓은 식물분류원은 식물에 대한 친밀감을 제공하는 백두대간수목원만의 특별한 공간이다.

01 암석원에는 귀한 고산식물들이 돌 틈에서 자라고 있다 02 에델바이스로 불리는 고산식물, 솜다리꽃 03 만병초원에는 전 세계 200여종의 다양한 만병초들이 식재되어 있다 04 습지에 가득 핀 붓꽃 05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침엽수림 산책 06 전시장에 마련된 시드볼트 소개 공간 07 나무구조물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방문자센터 내부 08 꽃의 씨앗과 꽃가루의 전자현미경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09 자연사한 호랑이 금강이의 박제



10



11

10 축구장 크기 일곱배의 호랑이 숲 11 숲 호랑이 우리가 오수를 즐기고 있다 12 아이들을 위한 습지생태체험 프로그램 13 숲 해설사가 들려주는 자연생태 이야기 14 동물의 발자국에 관한 설명을 듣는 아이들 15 옛날 호랑이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돌무덤인 호식총



12



13



14

피톤치드 가득한 침엽수림 산책과 백두산호랑이

수목원의 매력 중 하나는 울창한 산림 속을 거니는 숲길 산책이다. 수목원이 자리한 춘양면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최고 수종인 금강소나무의 대표적 조림지로 알려져 왔다. 단단하고 거대한 금강소나무는 목조건축이 주를 이루던 시대 특급 목재로 사용되어 왔는데, 주로 궁궐이나 사찰, 국가시설물의 건축에만 사용되던 귀한 재목이다. 백두대간수목원에는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는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다. 수목원의 둘레를 따라 금강소나무 군락지와 자작나무원, 관상침엽수원으로 이어지는 침엽수림 산책도 백두대간수목원의 빠트릴 수 없는 체험 거리다. 피톤치드와 양치식물이 가득한 자작나무 숲원을 지나면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다.

48,000㎡, 축구장 7개 크기의 너른 공간에 자리한 호랑이 숲이다. 멸종위기인 백두산호랑이의 야생성을 지키기 위해 자연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으로 꾸며진 호랑이 숲에는 현재 세 마리의 백두산호랑이가 보금자리를 틀고 있다. 암놈인 한청이와 수놈인 우리, 두만이다. 개관 후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의 대부분은 이 호랑이들을 보러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기 있는 공간이다. 호랑이들은 매일 오전 9시에 방사장으로 나와 오후 5시쯤에 우리로 되돌아간다.

숲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방대한 백두대간 수목원을 모두 걸어서 둘러 보려면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전기트램을 이용해 단풍식물원이나 돌틈정원에 하차하여 쉬엄쉬엄 도보로 내려오는 것이 좋다. 백두대간수목원을 조금 더 재미있게 관람하고 싶다면 수목원에서 제공하는 해설프로그램을 꼭 이용해 보길 권장한다. 그저 지나쳐갈 수 있는 숲과 자연 생태에 관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해설사와 함께 산책하면서 들을 수 있다. 방문객의 관심사나 구성여건에 따라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호랑이 숲을 비롯해 수목원의 대표주제원을 둘러보는 호랑이 숲 산책, 자연습지와 인공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습지를 탐방하는 습지산책, 약용식물원과 약숲을 돌아보는 백두대간 약숲체험 프로그램,



15

유아나 저학년 아이들을 위한 숲 놀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한 일박 이일 동안 머물며 조금 더 심도 있게 돌아볼 수 있는 체류형 교육프로그램도 있다. 아이들을 위한 수목원 생물탐사인 '여름아 부탁해'는 수목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곤충, 식물, 동물과 별자리 등을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고, '수목원 해 질 녘 산책'은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월별로 특별히 마련된 기피프로그램도 있다. 7월에는 나무 인문학자이자 '한국의 나무 특강' 저자인 고규홍 작가와 함께 숲을 돌아보는 수목원 북스테이 '자연의 품에 안겨 책을 읽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에 관한 일정과 참여 신청은 백두대간수목원 홈페이지(<https://www.bdna.or.kr>)나 백두대간수목원 교육사업실(054-679-0841~3)에서 진행된다.

TIP 관람코스

쉬엄쉬엄산책(트램이용)/ 소요시간 1시간

방문자센터 - 트램승차장(승차) - 단풍식물원(하차) - 사계원 - 거울연못 - 돌틈정원(승차) - 트램승차장(하차)

고산식물의 초대(트램이용)/ 소요시간 2시간

방문자센터 - 트램승차장(승차) - 단풍식물원(하차) - 진달래원 - 만병초원 - 에코로드전망대 - 자작나무원 - 암석원 - 야생화언덕 - 거울연못 - 꽃나무원 - 돌틈정원(승차) - 트램승차장(하차)

깊은 숲속 호랑이(트램이용)/ 소요시간 2시간

방문자센터 - 트램승차장(승차) - 돌틈정원(하차) - 고산습원 - 호랑이숲 - 자작나무원 - 암석원 - 야생화언덕 - 거울연못 - 돌담정원(승차) - 트램승차장(하차)

수목원 완전정복(도보코스)/ 소요시간 3시간

방문자센터 - 식물분류원 - 약용식물원 - 돌틈정원 - 꽃나무원 - 돌담정원 - 거울연못 - 사계원 - 단풍식물원 - 진달래원 - 만병초원 - 에코로드전망대 - 암석원 - 자작나무원 - 호랑이숲 - 고산습원 - 돌틈정원 - 방문자센터 **E&C**

동해안 뱃놀이를 즐기다

일기분류 : 유산일기

출 전 : 해유록(海遊錄)

시 기 : 미상

인 물 : 김양진(金養鎭)

주 제 : 명승유람

장 소 : 경상북도 영덕군

◆ 조선 말 영남의 예학자 김양진

이 이야기는 김양진이 작은 형 및 친구들과 더불어 동해안을 유람하고 뱃놀이를 즐긴 내용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양진(1829~1901)은 본관이 의성이며 호는 우현(愚軒)으로 안동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연마하였고, 출사를 단념하고 후진 양성에 힘썼다. 그의 사후에 손자 김익락에 의하여 문집인 『우현문집』이 출간되었는데, 이 문집을 통해 그의 학문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학작품을 제외하고 그의 글들은 의례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저술이 상당수에 이른다. 특히 상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이 많다. 상례를 비롯한 의례 연구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당시 영남지방에서 행해지던 변용 의례들에 대해 논란한 글도 아울러 수록되어 있다.

‘바다를 본 사람에게 다른 물은 큰물로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 실감납니다.

어르신~ 운전 중에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작년 음주 단속에 걸려서... ㅠ



1853년 계축년 가을, 김양진은 작은 형과 함께 동해안을 유람했다. 따라나선 친구들과 아울러 옥천을 거쳐 동해안 바닷가에까지 두루 둘러보았다. 바다에 도착하여 바닷물을 보고 있노라니, 뱃자에서 본 '바다를 본 사람에게 다른 물들은 큰물로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 실감났다. 과연 바다의 경관은 동해안이 최고란 말이 허명이 아님을 깨달았다. 서남쪽 바닷가 사람들도 가까운 데를 두고 굳이 동해안을 찾는 것은 아마 이런 풍경을 보기 위해서이리라.

나룻터에 들르니, 뱃사람이 말하길 오늘은 바람이 잔잔하여 배를 띄우기 좋은 날씨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일행들이 다투어 배에 올랐다. 김양진은 겁이나 머뭇거렸지만, 이윽고 배를 출발한 지 잠깐 사이에 나룻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와 있었다. 큰 잔에 술을 연거푸 들이키자 뱃사람들이 새우와 전복을 구하여 올렸다. 흥이 넘쳐 노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바다를 바라보며 한 곡조를 마치니 글자 그대로 신선놀음이 따로 없었다.

배가 점점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찰나, 갑자기 긴 고래와 큰 고기가 배 옆에서 물을 내품는 것이 아닌가. 파도가 산처럼 일어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일어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때마침 한쌍 노젓는 배가 남쪽으로부터 오니, 바로 세금을 실어나르는 조운선이었다. 이 조운선을 따라 다시 나루로 돌아왔다. 나루에 돌아와서도 회와 생선, 구이와 함께 술자리가 벌어지자 김양진은 “오늘 유람에 눈으로 먹은 것이 이미 많은데 또한 그 맛을 입으로도 먹으니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 라고 하며 껄껄 웃었다. E&C

트럼프가 김정은 보다 더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부터 정계 뿐만 아니라 재계, 심지어 연예계에서까지 주목을 받던 인물이다. 부동산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해 부를 축적했으며, TV 예능 쇼에 출연하면서 미국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는 공화당원이지만 갖가지 기행과 여성편력, 공화당원임에도 당의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낙인찍히기도 했지만 결국 대중의 지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며 기존 주류 정치권에 카운터펀치를 날리기도 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며 전 세계와 좌충우돌 중이다. 국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과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자국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란 게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대륙 굴기’, ‘중국몽’ 등을 천명하며 ‘G2’로 올라 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유럽연합 등 전통적인 동맹들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그는 이 같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항상 미국의 국익을 강조하고 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대를 뜻하는 ‘러스트 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지역이다. 그가 철강, 자동차를 중심으로 관세장벽을 쌓아 올리는 것도 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오는 11월 열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지지는 필수다. 지난 3월 ‘미 철강산업의 메카’ 피츠버그 지역의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 노동자들을 초청해 ‘수입산 철강’ 관세명령에 서명한 것 역시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그의 행동이 과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다들 의문을 제기한다. 일단 그를 지지한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은 그의 무역전쟁에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익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듯하다.

국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상황들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국익처럼 여겨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론 국익과 거리가 먼 정책들을 우리는 술하게 봐 왔다. 시간을 두고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란 게 주된 평가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줄어들고, 전 세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는 것이다. 일부지지 세력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 세계의 경제와 안녕을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자유세계 지도자라는 미국 대통령의 품격과 리더십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셈이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그의 좌충우돌 행보가 우리의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경제분야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질서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위해 한미 동맹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협받아선 안되는 가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안보와 질서를 경제적 이익으로만 환산해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구축에 노력해야 하지만 여기에는 북한이란 상대가 먼저 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두고 볼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 G7에서의 중심국가로서의 지위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그가 언론 등에 한미 군사훈련을 “엄청난 비용이 드는 낭비”라고 평가 절하한 게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을 법하다. 어떤 상황적 변화가 없음에도 본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장담하며 유사시 대응을 위한 한미 군사훈련을 차례로 중단시키고 있다.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맹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바꿔버리는 그의 현실 인식에서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말처럼 상황에 따라 국가 간 관계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안보적 상황이 변함이 없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변화할 것이며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란 점만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한 적 있다. 우리나라가 주도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된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일촉즉발 상황에 이른 ‘미국 대(對) 전 세계’ 양상인 무역 갈등,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돌발적인 인물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핵심 키 맨 이라는 점에서 씁쓸하다 못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트럼프가 김정은 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익이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호국보훈의 달, 한반도의 명운이 동맹국 역대 리더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사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고 불안할 뿐이다. **ESG**

위장병 예방을 위한 식사습관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식사습관이다. 식사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나쁘면 약을 먹어도 잘 치료가 되지 않으며 치료가 되어도 쉽게 재발한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유의하시면 건강한 위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인간의 몸에는 하루의 생체리듬이라는 것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신체 각 부분이 활동을 시작한다. 그래서 아침이면 위액(위산)이 분비되는데 아침을 거르면 위산은 계속 분비되고 그 위산이 위점막을 상하게 한다. 수시로 아침을 거르게 되면 그로 인해 위궤양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아침식사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다. 또 아침식사를 거르면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므로 가급적이면 적은 양이라도 먹는 것이 좋다.

2.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수저를 놓는다

조금 더 먹고 싶다고 생각될 때 수저를 놓는 것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다. 위 속에 조금 공간을 남겨두면 음식물과 위액이 잘 혼합되어 소화작용이 잘 진행될 수 있다. 떡이나 고기같이 소화가 힘든 음식은 특히 과식하지 않아야 한다.

3. 야식은 조금만, 잠은 2시간 뒤에 잔다

밤참이나 식사를 한 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위에 묵직한 감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이를 닦을 때 속이 메스꺼운 일이 있다. 이것은 아직 위 속에 음식물이나 알코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밤늦게 식사를 하고 '위가 소화를 시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틀린 생각이다. 위장도 밤에는 위산분비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낮보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밤에 음식을 먹고 바로 잠자는 일을 반복하면 위염을 일으키기 쉽게 된다. 부득이 밤에 식사를 해야 할 때는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조금만 먹도록 하고 식사 후 2시간 뒤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4. 음식은 꼭꼭 씹어 먹는다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은 위장 건강의 기본이다. 최소한 30번 정도는 씹어야 하겠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이나 국을 식탁에서 치우는 것이다. 물과 함께 먹으면 씹지 않고도

음식이 넘어가기 때문에 위장이 할 일이 많아져 위산분비가 많아져 위장병이 잘 생기게 된다. 곧은 밥을 먹으면 꼭꼭 씹어야만 삼켜지므로 위장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진 밥보다는 곧은 밥이 위장에 좋다.

5.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너무 찬 음식, 뜨겁거나 매운 음식, 겨자, 후추, 생마늘 등 위에 자극을 주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염이나 궤양, 위암의 발생을 촉진하게 된다. 특히 봄이나 가을에는 위액분비가 왕성해지므로 이러한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

6. 공복 시에 커피나 탄산음료는 금한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위액의 분비를 증가시키므로 공복 시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출근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위를 망치는 행위다. 특히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금해야 한다.

7.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위장도 휴식이 필요하다.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8. 술 마실 때는 기름진 안주를 먹는다

적당한 음주(소주 2잔, 맥주 두컵)는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과음은 위 점막을 자극하여 위염을 일으키게 하거나 간장에 부담을 준다. 이 때문에 빈속에 과음은 삼가야 하고 술을 마실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 위점막을 감싸주는 것이 좋다.

9. 흡연은 위에 좋지 않다

니코틴은 타액(침)에 녹으므로 담배를 피우면 침과 함께 위장으로 흘러 들어가 위점막을 자극한다. 또한 뇌를 자극하여 위산분비를 촉진시키게 된다. 특히 빈속의 흡연은 해로우므로 절대로 삼가야 한다.

10. 적당한 운동은 위장기능을 돕는다

위장기능을 원활히 하는 데는 적당한 운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몸을 잘 움직이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항상 위가 나쁘다거나 만성 위염인 경우가 많다. 위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가령 출근 시에 회사보다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 걷는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운동방법이다.

11. 스트레스를 풀어 준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위장기능에 아주 나쁘다. 스트레스는 위산분비를 촉진하여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을 일으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이 중요하다. 실제로 일 자체에 파묻혀 일 이외에 아무것도 취미가 없는 사람에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생기기 쉽다. 노래방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운동, 여러 가지 취미활동 등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거미줄을 인공적으로 생산 가능할까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강하면서 고무보다 유연하다. 탄성이 좋아 평소 길이의 4배나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질기기까지 해 방탄복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인간의 면역체계를 자극하지 않아 인공장기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꿈의 천연섬유인 거미줄 이야기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4만 5천여 종의 거미가 살고 있다. 3억 8천만년 동안 수많은 진화를 거치며 발달해 온 거미줄은 우리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예를 들어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억제하는 거미줄은 의

학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론일 뿐이지만, 거미줄로 만든 로프는 비행 중인 제트 여객기를 낚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거미줄만큼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소재는 많지 않다. 하지만 거미줄의 이 신비한 힘이 어디서 온 건지 밝혀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거미줄 유전자 분석이 어려운 이유

모든 거미줄은 다양한 단백질들을 맞춤형으로 연결해 만들어 진다. 각각의 단백질은 신축성, 탄력성 등 거미줄의 용도에 알맞은 속성을 부여한다. 문제는 반복되는 연결 구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미국자연사박물관의 거미줄 유전학자 세릴 하야시에 따르면 같은 거미가 만드는 거미줄이라도 드라마틱할 정도로 아주 다른 연결 구조를 수백 번 반복해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먹이 포획, 알 포장, 이동 등 다양한 거미줄의 용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단백질 구조들이 단 하나의 유전자 군을 바탕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유전자를 분석하면 거미줄의 비밀을 파헤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마침내 거미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거미줄의 복잡한 분자구조를 밝혀냈다.



사진1. 거미줄은 강철보다 강하고 고무보다 유연해 과학자들에게 꿈의 천연섬유로 불린다.
출처: Shutterstock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연구원들은 2014년부터 거미 70종의 유전자 3,400개를 비교 분석하는 고된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의 생각보다 더 많은 유전자가 거미줄 만들기에 관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에 따르면 거미의 유전체에서 거미줄 및 그 접착력(potential silk and glue components)과 연관된 유전자만 총 209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황금원형거미(Nephila clavipes)의 경우, 총 28개의 거미줄 유전자가 있으며 그중 8개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다.

한편 황금원형거미의 유전체를 분석한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약 400개 정도의 짧은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들을 분석하면 유연성, 점착성 등 다양한 거미줄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 거미줄 가능할까

이제 과학자들의 관심은 인공 거미줄 제작에 쏠린다. 거미는 양식이 불가능하기에 거미줄의 대량생산은 지금껏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 하지만 거미줄의 복잡한 분자구조가 밝혀졌으니 인위적으로 인공 거미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미 암실크, 아디다스, 노스페이스 등 많은 기업들이 거미줄의 분자구조를 모방해 우수한 생체섬유를 만드려는 시도를 해 왔다. 안타깝게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거미줄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크기가 인체 단백질의 약 2배인 600kDa(kilodalton)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로는 이만큼의 단백질을 복제하는 것이 어렵다. 이보다 크기가 작으면 실제 거미줄만큼의 강도와 탄성, 유연성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실망은 금물이다. 관점을 바꿔 거미줄의 특성을 갖는 섬유를 다른 생물로부터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거미줄의 유전자를 누에에 넣어 거미줄의 장점을 가진 실크를 만드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구조가 밝혀진 이상 거미줄을 인공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언젠가 스파이더 맨처럼 손에서 거미줄을 발사하며 빌딩숲을 날아다닐 날이 올 지도 모를 일이다. **E&C**



사진2. 거미줄 관련 유전자가 분석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누에에 거미 유전자를 넣어 거미줄의 특성을 갖는 실크를 뽑아내는 것도 가능할 지 모른다.
출처: Shutterstock



Festival

정남진 장흥물축제 2018

기 간 : 7월 27일 ~ 8월 2일 장 소 :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전라남도 장흥로)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전국 어디서나 볼 수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공연, 전시 및 관람 위주의 전형적인 축제의 틀을 벗어나 뜨거운 여름 누구에게나 반갑고 친숙한 '물'을 주제로 하여 방문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물'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모든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깨끗한 자연과 건강한 삶, 그 속의 숨이 있는 정남진 장흥을 흠뻑 느끼고 즐길 수 있다.

주·야간 계속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어른에게는 바쁜 일상속에서 잊고 있었던 순수함을 되살려 줄 것이며 아이에게는

최고의 놀이터가 되어 줄 것이다.

<http://festival.jangheung.go.kr>

Exhibition

신카이마코토展 <별의 목소리>부터 <너의 이름은.>까지

기 간 : ~ 9월 26일 장 소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혹자는 생소한 이름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감독이라고 얘기한다면 짧은 감탄사와 함께 단번에 그를 알아볼 것이다. 신카이 마코토! 첫번째 장편 애니메이션 <별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너의 이름은.>까지 한작품, 한작품이 세상과 만날 때마다 그에게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었고, 그의 섬세함과 감수성에 공감하고 매료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런 그가 월드투어를 시작했는데 한국에서의 신카이마코토展은 180도 와이드 스크린, 프로젝터 매핑 등을 이용해 애니메이션 속의 명장면을 바로 눈 앞에 그대로 재현한다. 또한 지난 <너의 이름은.>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스케치존'이 보다 넓은 규모로 마련되어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을 그대로 따라 그려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

www.sacticket.co.kr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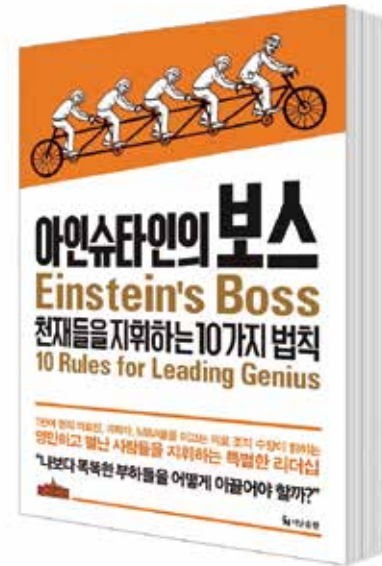
아인슈타인의 보스 : 천재들을 지휘하는 10가지 법칙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헤르만 바일, 쿠르트 괴델, 오즈월드 베블런...

천재 과학자들을 융합해 최고의 조직을 만든 비결을 밝힌다

『아인슈타인의 보스』(원제: Einstein's Boss)는 세상을 바꾼 천재들을 이끈 플렉스너의 철학과 행동을 현대적 관점에서 흥미롭게 재해석 한다. 기실 관련 업계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천재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일은 컴퓨터과학에서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발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성과를 얻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세계적 백혈병 전문의로 플로리다대학 의과대학장을 거쳐 현재 텍사스대학 샌안토니오캠퍼스 의과대학을 이끌고 있는 저자는, 천재들은 관리되거나 통솔되지 않으며 이들에게 일반적인 리더십 원칙은 통용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천재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 자체를 싫어하며 태생적으로 팀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1만여 명의 교직원, 의료진, 수련의를 이끌어온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을 접목해 천재들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 방법론을 설파한다.

로버트 호로마스, 크리스토퍼 호로마스 저/박종성 역 | 더난출판사



Movie

엔트맨과 와스프

“이제 믿을 건 자네 둘 뿐이야”

사이즈부터 다른 마블의 히트카드가 온다

'시빌 워' 사건 이후 은둔하며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에서 고민 중이던 '엔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 앞에 정체불명의 빌런 '고스트'가 등장한다. 시공간의 개념이 사라진 양자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훔쳐 달아난 고스트를 쫓던 엔트맨과 와스프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에 직면하는데...

상영중



성수기 예약이 된다고요?

| 휴가철 관광시설 예약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항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다과 및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현금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휴가철 관광시설 예약



예약을 도와줬는데 윤리행동강령 위반이라고요?

항응에는 접대 뿐 아니라 편의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도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성수기에 예약이 힘든 상황에서 콘도 예약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항응에 해당합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토목 테니스회(CTC)



토목기술처 테니스 동아리인 CTC에서는 지난 6월 6일 본사 테니스 코트에서 춘계 테니스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CTC는 토목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춘계 및 추계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천 사옥 이전 이후로 최대 인원인 17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선수들의 실력을 고려하여 최고조, 사랑조, 화합조로 나눠 경기를 진행한 결과, 각 조에서 다음과 같이 입상자들이 결정됐다. 대회 종료 후 근처 식당에서 조촐한 뒤풀이를 하며 성공적인 추계 대회를 다짐하고 춘계 대회를 마무리했다.

구분	최고조	사랑조	화합조
1위	이완호 상무	유광훈 부장	허영 부장
2위	문일환 부장	정일선 부장	박재완 부장
3위	곽병기 대리	정성화 부장	이강우 부장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력)사업관리실 구본형 사원 : 5월 19일 구미 금오산호텔
- ▶ 혁신성장전략실 전형원 사원 : 6월 2일 대전 오페라웨딩
-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오현택 사원 : 6월 2일 대구 아일랜드하우스
- ▶ 신사업)토목건축기술그룹 이민섭 부장 자녀 : 6월 9일 더모스트웨딩홀

부음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송재철 부장 부친상 : 5월 2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 ▶ 원자력)원전안전센터 이선규 부장 부친상 : 5월 3일 부산 동아대병원
-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최찬영 차장 장인상 : 5월 7일 사랑의병원
-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고용상 부장 모친상 : 5월 9일 유성 한가족요양병원
- ▶ 기술전략실 백현기 부장 부친상 : 5월 14일 메디힐병원
-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은협 과장 모친상 : 5월 14일 경주 동국대학교병원
-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김양수 부장 장인상 : 5월 15일 완주 호스피스장례식장
- ▶ 원자력)사업책임자실 정우성 상무 장인상 : 5월 19일 김제 중앙병원
- ▶ 원자력)사업처 문영태 부장 장모상 : 5월 30일 분당 서울대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실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우회 동정

2018 춘계 명승지 탐방행사 개최

- 일시 : 2018년 5월 23일(수)
- 장소 : 충남 공주 마곡사 / 백제 역사유적지

이동우 화백 제11회 작품전시회 개최

- 전시기간 : 2018년 5월 10일(목) ~ 6월 10일(일)
- 전시장소 : 서울시니어스 가양타워 1층 갤러리

결혼

- 김진석 회원 자녀 : 5월 19일 그랜드컨벤션센터
- 김차호 회원 자녀 : 5월 19일 더리버사이드호텔
- 김창시 회원 자녀 : 5월 26일 Hawaii kai marina chapel
- 이덕규 회원 자녀 : 6월 3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
- 정광훈 회원 자녀 : 6월 16일 더모스트웨딩

부음

- 조성돈 회원 장인상 : 5월 1일 상계백병원
- 권오길 회원 모친상 : 5월 3일 대구영남대학교병원
- 박안식 회원 장모상 : 5월 3일 칠곡 농협연합장례식장
- 오경한 회원 모친상 : 5월 14일 분당 서울대병원
- 전상훈 회원 본인상 : 5월 16일 분당 서울대병원





해외여행자 증가에 비해 소비자불만 증가율 높아

— 여성, 30대, 중국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년 간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 불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지속적으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과 중국 여행자의 불만이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부터 '16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72,329건과 국외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0,133건

◆ 최근 7년 간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153.0% 증가

지난 7년(2010년~2016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92,46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7,295건에서 2016년 18,457건으로 153.0%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출국자수* 증가율(79.2%)의 두 배에 해당한다.

* '주요국 한국인 출국 통계'(한국관광공사, 2017.5.)

소비자불만 92,462건 중 성별 확인이 가능한 92,456건을 분석한 결과, 여성(57.0%)의 불만이 남성보다 더 많았고,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55,821건을 분석한 결과, 30대(41.3%)의 불만이 가장 많았다.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2010년에는 30대, 20대, 40대 순으로 소비자불만이 많았으나 2016년에는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 유형이 확인된 91,38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 거부'와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 임의 변경', '정보 제공 미흡', '결항·연착 등 지연'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계약해제 거부'의 경우 2010년 3,500건에서 2016년 10,473건으로 약 3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불만 비중도 2010년 48.7%에서 2016년 57.5%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 한국인 출국자수 및 증감률〉

출처 : 한국관광공사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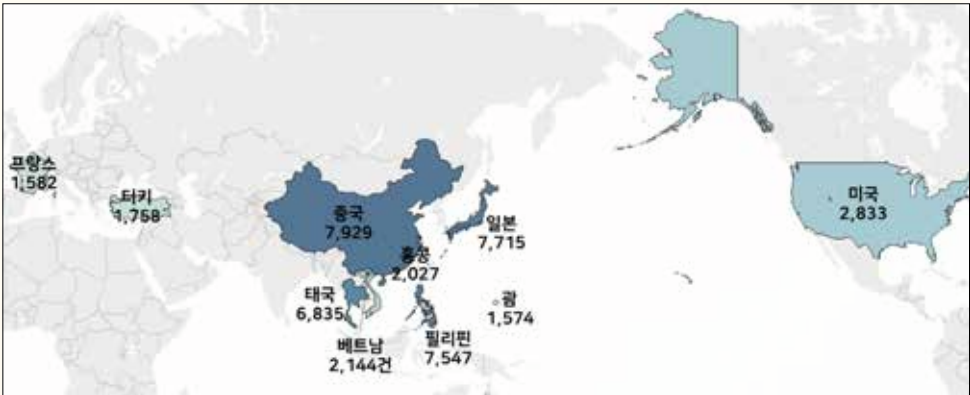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출국자수	12,488,364	12,693,733	13,736,976	14,846,485	16,080,684	19,310,430	22,383,190	111,539,862
증감률	-	1.6	8.2	8.1	8.3	20.1	15.9	-

◆ 중국 여행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고, '16년에는 일본 여행 불만 증가

소비자불만 발생 여행지가 확인되는 63,413건을 분석한 결과, 많이 접수된 여행지 10곳은 중국(12.5%), 일본(12.2%), 필리핀(11.9%), 태국(10.8%), 미국(4.5%), 베트남(3.4%), 홍콩(3.2%), 터키(2.8%), 프랑스(2.5%), 괌(2.5%)이었으며 특히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관련 불만은 분석기간 중 매년 4위 이내였고, 7년간 전체 47.4%를 차지했다.

중국 여행 관련 소비자불만은 지난 7년 간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감소(△2.3%)했고, 일본은 규슈 지진(4월) 등의 여파로 지난해 소비자불만이 77.3% 증가했다.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상위 10개국 ('10년~'16년)〉



◆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여름 휴가철, 천재지변 등과 관련 많아

해외여행 소비자불만은 월별로 꾸준하게 접수가 되는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지진·메르스·테러 등 발생시에도 소비자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소비자불만 인포맵 및 맞춤형 정보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이번에 분석한 해외여행 소비자불만 트렌드 인포맵을 소비자원 빅데이터 홈페이지(<http://data.kca.go.kr>) 및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소비자불만 예방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에 맞춤형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다. E&C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빗방울

Writer 정지효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정세민 과장 자녀

빗방울이 또르르르

투명구슬이 송알송알

나뭇잎 위에 내려앉은 방울이,

하늘 위 구름을 보며

“엄마! 저 방울이에요!

저 지켜보고 계시죠?”



참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
이쁜 꽃을 피워서...

너는 참 좋겠다
나비가 날아와서...

너는 참 좋겠다
종일 햇빛과 바람과 놀아서...

너는 참 좋겠다
하루종일 잎이랑 같이 있어서...

참!! 좋겠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환경처 부장

